

제58회 식목일 행사

경제성있는 조림이 필요할 때 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은 건 여러분이 재수 좋은날이라는 뜻이고 날씨가 좋은 가운데 식목을 해서 뜻 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한국이 조림에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산을 조금 더 경제성 있게 가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잘 해서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밑천이 됩니다. 오늘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심기는 희망을 주는 뜻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무궁화를 심는 것은 우리 민족의 꿈을 확인하고 이 땅에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우리 민족이 발전하고 번영하길 염원하며 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번영을 가꾸도록 하는 마음가짐으로 기원합니다.

모든 힘이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아울러 말하자면 어제 부시 대통령이 전화를 했습니다. 파병 결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이걸 공개가 안 된 내용인 것 같은데 장차 북핵문제는 반드시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적 해결을 다짐했고 그 전 과정에 한국정부 그리고 국민과 협의하고 협력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무를 심고 보니 생각나서 그것도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라고 생각해서 말했습니다.